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 총권 34호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13 2층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이야기의 힘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다.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가 눈에 뜨이기에 한마디 했다. “감 따 먹을 때가 되었네요!”, “아. 저 감이요? 고3 입시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돼요.”, “?”,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달리 길 기원하죠. 멧모르고 감을 건드렸다면 고3들이 난리가 납니다. 폭력(?)사태가 일어나도 이 일만큼은 선생님들도 눈감아 준답니다.” 아, 감나무에 얽힌 이야기 하나로 교정의 감나무는 초겨울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며 여전히 감을 달고 있다.

이야기의 힘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 마케팅’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디에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외래어가 붙여져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이야기 정보의 사용에 익숙하다. 그것은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문화들 속에서 이것저것들을 배워온 방식이었다. 통계와 논리적 논증으로 세계에 관해 배우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우리 뇌가 이야기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사실도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지식을 쌓게 하고 사회를 지배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앤 K 롤링은 ‘헤리포터’라는 이야기만으로 단번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64개 언어로 번역돼 4억 권이나 판매되었고 책으로 벌어들인 돈이 1조 2천억 원이 넘었다고 전해진다.

이야기의 막강한 힘은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광고, 기업, 상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일본의 아이모리현 합작사과는, 태풍으로 사과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 수확량이 줄었으나,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행운의 사과”라는 이야기 덕분에 대박이 났다. 우리의 박카스나 초코파이 광고, 테이시리즈(삼겹살 데이, 짜장면 데이, 빼빼로 데이 등등)들도 모두 이야기를 입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야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이야기의 매력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되는데,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로를 이용하

는 것. 많은 기업에서 주부소비자군단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아줌마들의 왕수다가 신제품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재미있는 통계자료도 있다. 2008년 한 광고회사가 40대 아줌마들을 조사한 아줌마 앤 더 시티(AJUMMA & THE CITY)를 발표했는데, 아줌마들의 수다가 ‘시간 때우기 용’에서 ‘정보 교류용’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67.4%가 단순한 수다를 떨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61.9%는 수다에 돈 되는 정보가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는 정보사회를 넘어 꿈의 사회(dream society)라 정의된다. 꿈의 사회란, 꿈과 감성, 이야기의 힘이 주도하는 사회, 상상력과 이야기가 생산력이 되는 사회, 꿈과 감성과 이야기를 파는 사회를 말 한다. 그렇다면 21세기 유망직종은 바로 ‘스토리텔러’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야기꾼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경험이다. 친하기도 하고 또는 그저 알고만 지냈던 몇몇 주부들과 동네에 살면서 기억나는 장소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커뮤니티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놀았던 기찻길 옆 숲속, 부부싸움 후 혼자 쓸쓸하게 앉았던 아파트 안 벤치, 딸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었던 시장거리 등등 소소한 개인사를 나누었을 뿐인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것도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개인사가 얽힌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야기를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묘한 감동을 느꼈었다.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고 그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순간이다.

소통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 세상이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21세기 미래인재로 키울 수 있다.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을 수다쟁이로 만들기를 권한다.

오현애 | 박물관이야기 회장, 교육나눔협동조합 대표, 학도넷 운영진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책모임 시절인연이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구미숙 / 김근혁 / 조원희 / 최은영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신계초등학교 도서관협력자 ‘동화마을 친구들’과 ‘어린이사서’

- 김선영(서울 신계초등학교 사서)

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해 온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어가며 꾸려 왔던 학교 도서관이 이제 조금은 틀을 갖춘 것 같다. 다른 학교 도서관에 비해 별반 다른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꾸려오고 있는 우리 학교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서관의 협력자 ‘동화마을 친구들’

우리학교에는 ‘동화마을 친구들’이라는 학부모 자원 활동가들이 있다. ‘동화마을 친구들’이란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다.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으로 ‘동화마을친구들’ 모집 안내를 하였다. 일정시간 봉사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2~3명쯤이라도 모집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뜻밖에 10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에는 직장 근무를 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간을 내주겠다는 분도 있었다. 모집된 학부모들로 활동순서를 정하고 아이들에게 읽어 줄 책을 주제별로 나누어 선정했다.

학급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해 하고 걱정을 했다. 집에서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듯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자고 하자 책읽어주기 사전 연습을 많이 해왔다.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1학년 각반 교실로 ‘동화마을친구들’이 1명씩 들어가서 책 읽어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려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자신 없어 하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횃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들과 눈도 맞추고 그림동화의 그림도 자세히 보여주고 나중에는 책 읽고 이야기까지 나누는 여유를 보였다.

2학기가 되자 아이들은 목요일이면 ‘동화마을친구들’을 교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또 들려준 동화책을 도서관에 와서 찾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이 잘 읽지 않던 책도 한번 읽어주고 나자 찾는 아이들이 생겼다. 책읽어 주는 활동이 끝나가는 무렵 그동안 읽어주었던 책에 대해 인기투표도 하고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하고 열쇠고리를 만드는 활동도 했다.

‘동화마을 친구’ 활동이 마무리 될 무렵 동화책 공연을 계획하였다. 어머니들의 숨겨진 재능과 뜨거운 열정

이 더해져서 움직이는 인형극을 제안했다. 공연을 위해 동화책을 고르고 각색도 하고 필요한 소품도 만들었다.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빠듯했지만 동화책 공연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공연을 마친 동화마을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 노력의 보람을 느꼈다.

우리학교에는 명예교사 어머니들이 40명이 있다. 사서 혼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이 많기에 당번을 정해 사서를 도와주고 있다. 바쁜 점심시간에 대출, 반납도 같이하고 제때 바로 정리해 주어야 하는 서가정리도 한다. 새 책이 들어오면 라벨을 붙여 서가 재정비도 도와 주고, 도서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진행하며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도서관의 협력자-어린이사서

어린이사서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어린이 모임으로 5~6학년 어린이 10여 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 사서 모집은 학기말이 되면 그해 활동한 어린이사서들이 4학년 교실로 다니며 내년도 어린이사서 모집을 홍보한다. 홍보활동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지원자를 접수 받고 성실하게 활동할 어린이를 심사하여 10명 내외로 선발한다.

새 학기가 되면 선발된 어린이사서는 1주일에 한번 요일을 정해 반납된 도서를 정리하고,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는 함께 모여 책도 읽고, 느낀 감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도 한다. 또 한 달에 2번 1학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봉사활동도 한다. 처음에 1학년에게 책읽어주기를 하자고 하자 대부분 소극적이고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1대1로 짝을 맺어 책읽어주기 활동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1학년 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기도 하였다. 어린이사서 활동 중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기행이 있다. 인근의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과 함께 계획하고 떠나는 활동이다. 동화책을 읽고 작품의 배경지를 둘러보거나 작가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촌을 다녀왔다. 고전소설 <운영전>을 읽고 떠난 기행은 작품의 배경지인 수성동계곡을 찾아보고 즉석에서 사행시 짓기를 하였다. 또 서촌 일대의 문인들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관

련된 이야기도 들었다. 운영전과 관련하여 팀을 짜서 운영전 골든벨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문학관을 둘러보고 영상자료도 보고 돌아왔다.

4월, ‘세계 책의 날’에 펼치는 다양한 행사

4월이면 ‘세계 책의 날’ 행사를 한다. 평소 도서관에 잘 오지 않던 아이들도 도서관에 한번 들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여기 저기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나만의 대출증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팔찌 대출증 만들기 등등의 활동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을 계획을 세운다. 결정이 되면 어린이사서들은 각반으로 돌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명예교사 어머니들은 행사에 관련된 준비 물품을 같이 준비하고 행사 당일 진행을 도와준다. 행사시간은 아이들로 북적북적 도서관이 호황을 누린다.

가을에는 동화작가와 만남이 있다. 아이들이 읽은 책 중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나 꼭 초대하고 싶은 작가를 선정하여 섭외하고 아이들에게는 초청 작가의 책을 읽도록 한다. 학년에 맞게 작가의 책을 바꾸니에 담아 각 교실로 순환하며 책을 읽힌다. 책 읽고 작가에게 편지쓰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활동을 하면서 작가와의 만남을 기다린다. 작가를 만나는 날에는 작가의 책표지를 가방에 그리는 가방꾸미기 활동도 하고,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질문하는 시간에는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답하느라 열기가 뜨겁다. 작가와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서 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학교도서관사서로서 많은 협력자들과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어느덧 한해가 또 저물어간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올해도 순탄하게 도서관 운영을 한 것 같다. 많은 아이들이 ‘책읽기는 정말 재미있고, 도서관에 가면 재미있고 다양한 좋은 책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토록 책과 도서관과 친구가 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한다.



각 교실에서 책을 읽어주는 동화마을 친구들



어린이사서 문학기행



세계 책의 날에 아이들과 함께 한 팔찌 대출증만들기

학교도서관과 미래의 저작권자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 백연주(서울 성동구립청계도서관 사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과과정에서의 저작권교육과 함께 교사와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가장 저작물이 많은 곳이고 학생들이 항상 가깝게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사례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미루어 볼 때 학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꼭 필요하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작권이란 사람의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	내용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70년 동안이다. 만약 어떤 만화가가 30살에 만화 한 편을 쓰고 75세에 사망했다면 그 만화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만화를 써서 발표하고 난 뒤 살아 있었던 45년과 사망한 후 70년을 합쳐서 모두 115년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저작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공동저작물로 그 보호기간은 공동 저작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이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은 정품을 구입하고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교육을 한 뒤에 할 수 있는 활동

1. 저작권 관련 애니메이션 보고 이야기 나누기
2. 저작권포스터 그리기
3. 저작권 글짓기
4. 저작권 관련도서 읽고 감상평 쓰기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 김기태 지음, 상수리 『어린이 저작권 교실』 임채영 지음, 산수야 등)
5. 저작권캐릭터 그리기
6. 저작권 OX퀴즈
7. 저작권 3행시, 5행시 짓기
8. 저작권 만화 그리기
9. 미니북 만들기
10. 저작권 마인드맵
11. 저작권책갈피 만들기
12. 저작권 신문 만들기

저작권 OX퀴즈 예시

	질문	정답
1	'ㄱ' 학교의 시험 문제를 허락받지 않고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ㅇ' 출판사 사장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O
2	기출문제 등의 학습 자료를 복사하여 나누어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학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X

3	기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친구에게 빌린 옛날 시험지를 복사해서 혼자 공부한 영희는 저작권을 침해했다.	X
4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퍼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
5	인기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중 좋아하는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	O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정보

1.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index.do>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사진, 그림, 문학작품 및 동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저작물중에서 만료저작물이나 공유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조건에 의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마당의 저작물은 저작권 만료나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 및 공공기관의 무료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공공누리** <http://gongu.copyright.or.kr/license/license06.jsf>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3. **무료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 위키미디어 커먼즈 <http://commons.wikimedia.org/>
(특징 : 위키피디아와 연동되어 있어서 전문적 이미지 확보에 유용)
 - 퍼블릭도메인벡터스 <http://publicdomainvectors.org/>
(특징 :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된 이미지들을 제공)
 - 이미지베이스 <http://imagebase.net/>
(특징 : 사용에 아무런 조건이 없음)
4.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국립중앙도서관)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의 저작권자가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우리아이들이 저작권을 보호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열두분의 필자와 문학동네가 마음을 모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의 인쇄와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기부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김애란 | 김행숙 | 김연수 | 박민규 | 진은영 | 황정은 | 배명훈 | 황중연 | 김홍중 | 전규찬 | 김서영 | 홍철기

이것은 마지막 기회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_박민규(소설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

눈먼 자들의 국가

정가 5,500원
www.munhak.com 문학동네

책모임 '시절인연'이 권하는 책

2012년 3월 평생교육원에서 인연의 고리를 맺고 그 만남을 이어보고자 한 달에 한번 책모임을 하고 있다. 돌 지난 아이가 있는 30대부터 장성한 성인을 둔 50대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시절인연"이 있어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책수다를 나누며 성장하고 치유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토끼들의 밤

이수지 그림 / 책읽는곰

더운 여름날, 토끼 한 마리가 차에 치였다. 화가 난 토끼들은 조심스럽게 복수를 계획하는데... 이 그림책은 수없이 많은 토끼들로 가득하다. 토끼들의 모습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서서 오싹하기까지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두려워진다. 하지만 이 책의 장르는 공포가 아님을 절대 잊지 말 것. 큰 웃음을 선사해 준 토끼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앵무새 열 마리

틴 블레이크 글·그림 / 장혜린 옮김 / 시공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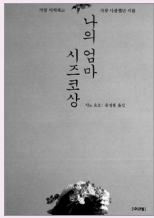
매일 매일 '똑같이' 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인사하는 뒤풍교수. 그의 한결같은 행동에 언더리가 난 앵무새들은 결국 탈출을 감행하고 뒤풍 교수는 난감해진다. 절묘하게 숨어있는 앵무새들을 찾아내는 재미와 함께 내가 남을 숨 막히게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볼게 되는 책이다.



빨간 머리 앤

루시 M. 몽고메리 글 / 김지혁 그림
김양미 옮김 / 인디고(글담)

프린스 에드워드섬의 초록지붕, 빨간 머리 앤이라는 것만으로 설레인다. 우리 아이들 유아시절에 그림동화로 읽어주며 나도 앤이 살고 있는 풍경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서점에 갔다가 앤의 모습이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림이 예쁜 장편을 만났다. 상상속의 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 설레이는 기분으로 사들고 왔던 책이다. 앤이 뛰어노는 푸르른 공간에서 나도 맘껏 뛰어 놀 수 있었고 앤의 꾸밈없이 천진난만한 상상력으로 자연들에 붙여주는 이름 앞에서는 내 마음도 깨끗해지며 입가가 올라가고 눈이 신선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의 동심과 새로운 열정, 희열을 맛보았다. 프린스 에드워드섬의 앤은 내게 늘 꿈을 꾸게 하는 보석이다.



나의 엄마 시즈코상

사노 요코 글 / 윤성원 옮김 / 이레

가장 미워하고 사랑했던 이름 나의 엄마 시즈코상.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엄마에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워한다는 것도, 그 만큼 그 이상의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엄마'란 단어만큼 눈시울 뜨겨워지는 말이 있을까. 엄마는 모든 것이다. 나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며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엄마로 인식되어 있을까? 아이들 생각하며 앞으로의 나의 삶의 방향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해봐야겠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글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유년기와 청년기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 보낸 작가의 처절한 자전적 소설이다. 가족과 혈육, 이웃에 대한 사랑과 생존에 대한 본능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혹한 식민살이와 전쟁을 겪으며 각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흥미진진하다.



이야기 인문학

조승연 글 / 김영사

스타벅스, 로맨스, 디자이너, 튜닝, 아이폰 등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는 수 천 년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무심코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유래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작은 의미라도 정확히 알게 되는 보람도 있고, 이야기처럼 재미있다. 한 단어의 배후에 무수히 많은 세월, 사람, 사건이 있다는 것은 '세계화'된 이유인 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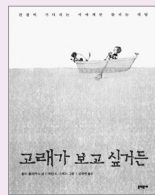


인생을 글로 치유하는 법

바바라 애버크롬비 글 / 박아람 옮김
책읽는수요일

서점에서 제목에 끌려 산 책이다.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존 스타인 백, 버지니아 울프 등 유명한 작가들의 글쓰기에 관한 글을 읽는 재미도 있다. 글이 안 풀릴 때는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들어가 혼자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작가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무조건 쓰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살다보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튀어나

오려는 순간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저자는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글을 쓸 때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누군가 화가 나서 인연을 끊자고 할 수도 있지만 글을 쓰고 나면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엄청난 삶의 혼돈을 정리할 수 있으며 좋은 순간들을 붙잡을 수도 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줄리 폴리아노 글 / 에린 E. 스테드 그림
김경연 옮김 / 문학동네어린이

고래가 보고 싶다면 창문이 있어야 하고, 바다가 있어야 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자와 담요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편하거나 포근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달콤한 향기와 어여쁜 분홍색의 장미 같은 건 모르는 척 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저 한눈 팔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인생의 정곡을 찌르는 말들이라 울컥하기도 하지만 파스한 색깔의 그림들과 강아지와 작은 새가 함께 하는 기다림이라 위로가 되는 책이다.



우주 호텔

유순희 글 / 오승민 그림 / 해와나무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폐지 줍는 '종이 할머니'에게 까만 눈동자가 맑게 빛나는 한 아이가 찾아온다. '종이 할머니'는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아주 어릴 적 꿈꿨던 하늘빛 기억을 떠올리고, 그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된다. 아이가 뽀르르 주고 간 스케치북 속에 펼쳐지는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들이 절로 미소 짓게 한다. 지구별로 여행 온 기분을 느끼며, 살아가면서 진정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본다.



온양이

선안나 글 / 김영만 그림 / 샘터사

1950년 12월 24일, 흥남철수 작전 마지막 피란선 '온양호'에 탄 명호네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지만 이 책은 "다시는 이리 모진 추위 겪지 말고, 따뜻하고 환하게만 살아라."하며,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지어 준 '온양이'라는 이름처럼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어두운 기억 속 아픈 과거 이야기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며,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자.

내가 권하는 책



**열다섯,
교실이 아니어도 좋아**

최관의 글 / 보리
2014년 11월 / 240쪽

열 다섯 살 소년 관의의 세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만나는 이상한 나라보다 더 낫설었다. 농사짓느라, 이발소에서 일 하느라, 채소 장사 하느라, 공장에 가느라 벗어버린 중학교 교복, 장롱 아니 마음속에 교복을 벗어 고이 접어두고 교실 밖 소년은 모험을 시작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가는 대신 돈을 버는 직업 청소년이 된 관의. 세상의 관문 하나하나를 통과해 낼 때마다 소년과 마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세계가 생각보다 더 따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의의 학교는 교실이 아니라 논, 토끼우리, 성환 이발소, 배추밭, 공사현장, 시장. 관의의 세상 담임선생님은 따뜻이 보살펴 준 이발소 아주머니와 아저씨, 쑥쑥 커준 배추, 토끼, 초보 장사꾼을 선택 밟고 배추를 사간 어른들, 용산시장 채소 도매 아저씨, 학교수업 말고도 학원 다니느라 새벽에 자서, 늘 잠이 부족하고 친구조차 사귄 수 없다는 지금의 아이들과 열다섯 관의를 비교하면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또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친 작은 소년. 관의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몇 걸음 뒤에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준 부지런한 부모님, 스스로 한 트럭이나 되는 많은 양의 채소 장사를 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얻은 자신감? 책장을 덮는 순간, 우리는 작은 소년에게서 깊은 위로를 받는다. 비록 위태로운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제법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소년은 우리를 토닥거린다.

- 이계윤(의정부 신곡중학교 국어교사)



한 나무가


이상희 글 / 김선남 그림
그림책도시 / 2014년 10월 / 32쪽

겨울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지 않지만 서양인들에게 그 일은 해마다 아주 중요한 행사다. 실제로 유럽의 크리스마스 트리 시장에 가보면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한국산이라고 한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이 구상나무는 일제강점기 시절, 월선에 의해 영국으로 건너가 서양 풍토에 맞게 개량된 나무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인기 많은 나무가 되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덕유산, 지리산, 무등산 등지에서 군락하는 수종이었는데 우리의 무관심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이상희 작가가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모든 나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나무의 존귀함과 나무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구상나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위한 기도의 의미로 쓴 책이기에, 나무 전문가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받았고 숲 공부를 한 작가에게 그림을 부탁했다고 한다.

책이 완성되고 난 뒤,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그림만 가득한 책이라고 나무 전문가가 말하였다고 하니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두 작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렇다고 교육적으로 딱딱하게 접근하지도 않았다. 시 그림책답게 서정적인 글귀들과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들이 책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어주어 추운 겨울날에 꺼내보아도 몸과 맘이 따뜻해진다. 책이 발간되고 얼마 안 돼 구상나무군락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좋은 책의 힘이 아닐는지.

- 박한내(책모임 '시절인연')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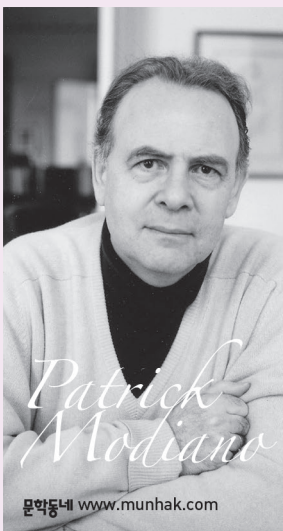
알랭 드 보통 글 / 정명진 옮김
생각의나무 / 2005년 5월 / 392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소중한 존재이다.”는 몽테뉴의 말로 시작하는 이 책은 총 6장으로 과거 철학자, 사상가를 통해 삶의 고충들로부터 위로받을 방법을 모색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시대나 상황의 한계에 맞서서 위선으로 가장하거나 군중 속에 숨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부지런함과 용기를 보여준다.

먼저 1장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은 상식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참 ‘나’를 생각하라는 의미이고 그 가치는 인기와는 무관하다. 2장의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본질은 쾌락인데 그것은 내적인 욕구로 외부의 견에 의한 물질적 충족과는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은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3장에서는 세네카가 불완전한 인간성에 대한 화해와 체념으로 좌절을 극복하라고 가르친다. 4장에서 몽테뉴는 이성으로부터 괴리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부적절한 존재감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한다. 5장에서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삶과 사랑을 지배하는 ‘생의 의지’는 개인의 의식과는 무관하며 사랑을 잃은 상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6장에서는 니체가 불운과 질병의 고초를 망각하거나 신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극복하고 초월하려함을 보여주며 그를 통해 우리 모두 초인이 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살다보면 영킨 실타래처럼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기보다 삶에 대한 희망과 논리적인 탐구심을 놓지 않는다면, 영킨 실뿌리 속에도 재크의 콩나무 같은 행운이 있을 것이다.

- 옥승혜(일산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201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기억의 연금술사' 파트릭 모디아노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녀석 슈라에게 별별일이 다 있었지 | 한밤의 사고 | 작은 보석 | 신원 미상 여자 | 도라 브루더 | 월롱 | 추억을 완성하기 위하여 | 팔월의 일요일들 | 청춘 시절 | 잃어버린 젊음의 카페에서 | 지평 |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사서선생님과 함께하는 옛이야기

구미숙(화성 행정초등학교 사서)

애들아, 추운데 아침 일찍 왔네. 여기 모두 모여봐 선생님이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들려줄게.

8시 30분 등교에 40분부터 수업을 시작했던 우리 학교는 아침시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다. 늘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하던 도서관에 아침부터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2학기 들어서 등교시간이 9시가 되면서 부터였다.

9시 등교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8시 30분 등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지, 아니면 일하러 출근하는 부모님 때문에 집에 더 머물 수 없어서 인지 예전처럼 같은 시간에 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돌봄교실 한 반과 도서관을 세이프 존으로 정해 놓고, 수업 시간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돌봄교실을 찾는 아이들은 본인이 돌봄교실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그곳을 찾았지만 그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한 개방된 장소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처음 9시 등교에는 세이프 존으로 지정된 곳이라서 그런지 도서관으로만 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인지 아이들도 일찍 등교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분산되어 움직이는 것 같다. 지금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상시에도 자주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 개방 시간부터 대출반납을 해 주다 보니 도서관 안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 책 읽으려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침시간은 '아침독서시간'으로 정해 다른 활동은 하지 않기로 하고 책읽기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아침독서의 4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모든 일과를 9시 이후로 미루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며칠간은 나도 아이들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재미로 도서관을 찾는 고정 독서자들이 생겨났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새롭게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도 덩달아 조용히 책을 읽게 되었다. 소수의 아이들과 짧은 시간 함께 하지만 이 시간이 나와 아이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일찍 도서관을 찾는 고정 독서자들에게 혼자

만의 책읽기 말고, 다른 무언가 해 줄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낸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할머니가 우리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들려주던 옛이야기를 이제는 익히고 익혀야 아이들에게 들려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핵가족이라는 사회 변화가 가져 온 현상일 것이다. 이런 재미 있는 이야기를 구수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듣게 되면 어떤 구연도 필요치 않았건만 지금은 옛이야기는 책을 통해 보거나 공연을 통해 보지 않으면 쉽게 접하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 속의 재미와 교훈을 전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책을 가까이 하라고 하기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듣고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손자들에게 들려주었을까. 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 할만한 이야기를 찾고, 익혀서 재미까지 더 해 들려주고 싶는데 이야기를 내면화시키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야기를 다 내 안으로 끌어 들이지 못한다면 아이들과의 눈 맞춤을 포기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도 난 짧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금은 재미있게 들려주더라도 아이들과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계속해서 해 보려고 한다.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그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말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만약 누군가가 내가 그린 만화를 몰래 베킨다면...

김근혁(서울 치현초등학교 4학년)

평소에 저작권에 대한 내 생각은 단순하게 음악이나 영화, 문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 국어 시간에 저작권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저작권은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 문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아주 짧은 글이나 음악 등도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창작되어질 음악이나 영화, 문서, 책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교 국어 시간에 동영상을 보며 저작권을 공부했다. 선생님께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저작권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저작권은 왜 필요한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만약 저작권이 없다면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를 해서 보게 될 것이고 돈을 내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영화를 찍을 때 사용했던 영화 제작비를 내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화제작비가 부족해서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다운로드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나는 평소에 취미로 만화를 만드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린 만화를 친구가 복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만화라고 해서 돈을 받는다면 난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나는 저작권 교육을 할 때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수업중간에 조금씩 배우지 말고 저작권 단원을 따로 만들어서 간단한 시험을 봐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시험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앞으로를 위해서 미리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미래의 저작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푸른도서관 책잔치 이야기

조원희(충주 칠금초등학교 교사)

지금도 책잔치를 떠올리면 숨이 차고 뛰어다녀야 할 것만 같다. 10년간의 교직생활 중 첫 해를 뺀 9년을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올 해는 처음으로 책잔치를 4일간 하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그리하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무모한 욕심을 내었던 것일까? 시작은 작가님 초대부터였다. 작년에 확보해 놓은 예산에 급하지 않은 서가구입비 예산을 돌려써서 작가님을 초대하기로 하였다. 학년군별로 한 분씩, 세 분. 무엇인가 아쉬웠다. 달빛도서관으로 밤에 아이들처럼 놀아보자 싶어 또 한 분 더, 네 분. 그리고 보니 책 잘 읽어 주시기로 소문난 '왜요 아저씨'도 초청해야지 싶었다. 이렇게 하여 하루에 한 분씩, 달빛도서관 있는 날은 하루에 두 분을 초청하여 4일간의 책잔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럼 책잔치 긴 기간을 즐겁게 책 읽는 시간으로 채워야 할 터이다. 학교 독서행사가 책 잘 읽는 아이들의

숨씨 자랑으로 그치는 일이 많아 순수하게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책 읽기 운동! 4일간 1교시와 아침활동은 '책 읽어주기'로 한다. 모든 선생님, 모든 교직원, 지역인사들을 초청하여 책 읽어주기를 진행하자.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교직원들도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던 머문 곳에서 책을 읽자. 그것이 바로 책 읽기 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시도하였다. 모두 함께 읽기! 첫 날은 담임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책, 둘째 날은 소방관님, 경찰관님, YWCA 사무총장님, 상담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 같은 지역 인사 분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 비담임 선생님, 행정실 분들까지 모두가 총동원된 책 읽어주기 시간이다. 셋째, 넷째 날은 이미 읽어주셨던 분들이 한 칸씩 옆 반으로 이동하여 책 읽어주기 진행. 그렇게 4일간 모든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가 이루어졌다. 아이들도, 책 읽어주기를 낯생 처음 해보신다는 경찰관님도 사무총장님도 기뻐하셔서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극복하고 싶었던 부분은 책 잘 읽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극복 할까 고민하다가 '책잔치 준비위원회'를 각 반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로 뽑았다. 의외로 내가 책을 제일 싫어하노라 하며 서로 하려 하였다기에 아이들이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책과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하였구나 싶었다. 그렇게 뽑힌 책잔치 준비 위원들은 매일 아침 모여 책을 읽고 가장 우선적으로 책잔치 행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준비물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뿌듯함이 가득한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모두가 참여한 책잔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스타에장품'이 있었다. 한 줄 감상 쓰기, 만화보다 재미 있는 책찾기 대작전 같은 행사 후에 아이들에게 나눠 줄 상품을 전 교직원에게 기증 받기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스타'는 선생님에게 선생님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해주시는 선물을 이번 책잔치 선물로 하기로 하였다. 고민하며 선물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은 큰 감동을 주셨고 아이들도 귀하게 선물을 받았다.

선생님들께도 책잔치는 즐거운 잔치마당이어야 하기에 부담 없이 참여하시라고 대부분 행사를 도서실에서 담당교사와 사서 선생님, 독서동아리 어머니들 힘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도 책 읽으며 함께 기뻐하는 아이들과 가족들 모습에 없던 힘이 펄펄 솟아나 기쁜 순간들이었다.

달이 뜨지 않아도 도서실을 가득 채운 가족들의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던 달빛도서관. 이안 시인의 강의는

정겹고 재미있었고 참여한 가족들은 시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김회경, 권혁도, 김남중 작가님과 만남은 책이 살아 우리에게로 오는 듯 귀한 시간이었고 계룡문고 '왜요 아저씨'와 '책 읽는 마법사'의 빛그림자책, 마음은 평소 누릴 수 없는 문화적 경험의 시간이었다. 책 읽기가 문화가 되는 순간이었다.

책 읽기는 역동적이고 재미난 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전래놀이, 책 놀이 시간도 신났다. 신문지를 뭉쳐 11월에 눈싸움을 하고 책으로 마당을 만들어서 깔고 앉아 책을 읽기도 했다. 황당했지만 색다른 책 읽기 시간이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고 담당교사가 더 신이 나서 했던 책잔치. 시간의 부족과 책 읽기, 전래놀이, 책 읽어주기가 생활 속에 녹아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아직 멀었다 싶고 더 섬세한 짜임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허나 책 근처도 가지 않았던 아이들이 도서실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자 싶기도 하다. 많은 기쁨과 숙제를 안겨준 책잔치가 이제 마무리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께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남았으면 한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삼만원의 행복
-학도넷 만남과 바람 나들이

최은영(서울 송화초등학교 학부모)

는 가을의 아침공기가 많이 차갑다. 입가에서 나오는 입김이 초겨울의 날씨를 느끼게 한다.

제기동역 근처에 있는 한의약박물관을 향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주말의 이른 아침 지하철 풍경은 평일의 분주함보다 여유로움이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나로선 일요일 이른 아침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디론가 향한다는 게 매운 드문 일이 되어버렸는데 모처럼 나만을 위한 하루를 갖게 되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도착한 한의약 박물관은 한약재 냄새로 가득하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 앉아 박물관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박물관... 하지만 막연하고 어려운 곳이다. 이런 박물관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루 일정들을 설명해 주셨다. 박물관과 연관된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뒤 박물관을 관람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잠시 후, 박물관 해설사 선생님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시작하였다. 한약재의 유통이 활발

했던 약령시장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한약보단 양약이... 그리고 한의원보단 병원이 더 친숙한 나로선 이곳의 한약재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였고 조금만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참 이로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관람 후 함께 했던 활동지도 참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박물관을 나와 걸어서 약령시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엔 조선시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던 보제원터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의 기념비로만 남아있었다. 한약재 상가들로 가득한 주변을 둘러보며 박물관에서 봤던 옛날의 보제원을 잠시 상상하게 하였다.

약령시장을 나와 점심을 먹으며 잠시 휴식 후 다시 대학로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쇠대박물관이다. 약간은 모던한 느낌의 건물 하나가 눈에 보였다.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1층의 입구 앞에서 가족 자켓 속 빨간 셔츠와 편한 청바지차림의 한 남자분을 만났다. 바로 쇠대 박물관의 관장님이시라고 했다. 관람하러 온 우리를 위해 직접 전시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였다. 우리는 최가네 철물점이 있는 2층을 지나 3층에 있는 쇠대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입구에는 쇠대들로 멋있게 장식되어 있었다. 입구를 지나 실내로 들어가면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속에서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다양한 쇠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두 관장님이 손수 수집하여 전시해 놓으셨다고 한다.

전시설명에 앞서 관장님의 인생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쇠대를 수집하게 되었는지도 들을 수 있었다. 쇠대 하나하나에 소중한 기억들과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관장님의 삶, 그리고, 역사가 함께 한 이곳에서 쇠대에 담겨진 관장님의 이야기들이 참 흥미롭고 즐거웠다. 관장님의 설명을 끝내고 자유 관람 후 활동지를 통해 또 한번 머릿속을 정리 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쇠대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체험 활동을 하였다. 엽전을 이용한 머리끈이나 머리핀을 만들었다. 모두들 나이불문하고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기회가 된다면 전시관 관람 후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체험활동이 끝나고 박물관 학교 하루 일정을 모두 정리하는 의미에서 돌아가며 한명씩 소감들을 나누었다. 처음의 만남은 참 낯설었다면 헤어지는 시간에는 아쉬움이 함께 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위해 함께 이끌어주신 박물관 이야기 선생님들, 학도넷 변영이 선생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쇠대박물관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시간들이 나에게 참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하고 싶다.

학도넷 소식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4년 9월 15일 소식지 가을호 발행(총권 33호)
- 2014년 11월 2일 박물관 학교 "박물관 학교 기획하기"
- 2014년 11월 29일 종일연수 "학교도서관과 저작권"

신입회원 (2014년 9월~2014년 11월)

- 정회원 : 김은영 소현 정영희
 준회원 : 정남숙 강병선
 웹회원 : 이혜진 황정하 씨즐북스 황미경 권효진 이상미

회비 및 후원내역 (2014년 9월~2014년 11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신은미 주상태 신형란 김정윤 김은영 선보배 이수연 구미숙 허지은 김미숙 변영이 백연주 백경숙 송숙영 정수연 강영미 유서연 송혜영 신정화 정혜선 윤남미 허지연 송경영 임민욱 강복숙 박미영 이현애 김영신 정영화 성주영 김대경 유정원 박준섭 차진미 김하나 이유정 이찬미 김선영 채재현 권도경 최선옥 이현 김경숙(보령) 김효숙 김심환 정영희
 - 매월 1만원 : 정수현 정지영 김진희 김중성 조의래 조은영 조선희 김경숙 박영옥 김순홍 이경자 문예원글로피아 백화현 이규향 허경림 오희애 이문숙 정진수 김옥위 김신희 권항미 박정해 강지영 박지연 류주형 김숙경 정영희 김승주 조길량 김광재 조선희 황봉희 박섬
 - 매월 3만원 : 윤성옥(해피북 책모임)
 - 연회비 : 김진희(성현동)12만
- 준회원 회비**
- 매월 : 장한솔(2천) 장벼리(3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손은상(2천) 김민형(2천) 송권형(1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강형인(3천) 이재희(2천) 최유미(3천)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광고후원 :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어출협)
여름사서연수 책 후원 : 그림 도독 준모 40권 (낮은산 출판사)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컵고양이 후루룩, 문을 열어! 여보세요, 생태계 씨! 안녕하십니까요?(낮은산)/ 나의 간디 이야기(다섯수레)/ 작은 사람 권정생(단비)/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더좋은책)/ 가방 속 책 한 권(도토리숲)/ 생각하는 사회(미지북스)/ 열다섯, 교실이 아니어도 좋아(보리)/ 나를 칭찬합니다, 외아들 구출 소동, 코끼리가 탈출했다, 책 읽기 달인, 동백꽃 섬 오동도, 돌아온 두루미, 캄캄한 밤에,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여우 나무, 안녕하세요?(봄봄)/ 어치와 참나무(북극곰)/ 더 스킨(상상희림)/ 똥만이, 한글 비가 내려요(웃는돌

고래)/ 시꽃 이야기꽃, 수염 없는 고양이(찰리북)/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철수와영희)/ 난 비겁하지 않아(청개구리)/ 공평한 분배를 꿈꾼 50인의 경제 멘토(책숲)/ 시골 꼬마 만복이(한솔수북)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가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모아모아 가을호(한국문예위원회어린이콘텐츠연구원)/ 산책(서해문집)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4 학도넷 박물관학교 했습니다.

- 주제 : 박물관학교 기획하기
- 진행 : '박물관 이야기' 강사진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일정 : 2014년 11월 2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한의약박물관, 쇠대박물관

학도넷 11월 종일사서연수 했습니다.

- 주제 : 학교도서관과 저작권
- 강사 : 정경희(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백연주(성동구립 청계도서관 사서)
- 공동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일정 :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2호선 강남역)

학도넷 겨울방학 사서연수 합니다.

- 연수명 : 빛으로 빛어낸 사람의 무늬, 영화 인문학의 세계 -영화로 역사읽기에서 나만의 역사, 영화로 제작하기까지...
- 강사 : -윤희운 영화교육가(성공회대 외래교수, 29초영화제 집행위원 & 심사위원) -이재욱(前 산청간디학교 학생동아리 교사, 청소년수련관 UCC 동영상제작 강사)
- 연수내용 : -1월 12일 (첫째날) / 강사 : 윤희운 영화 인문학 열기 : 21세기, 왜 영화 인문학이 화두인가? / '빛'으로 빛어낸 사람들의 무늬! 영화읽기 / 영화 속 그림과 창의력읽기

-1월 13일 (둘째날) / 강사 : 윤희운 인문학의 꽃, 역사를 영화로 배우다 1 / 인문학의 꽃, 역사를 영화로 배우다 2 / 그림책을 소재로 한 영화읽기의 세계(폴라 익스프레스, 강아지똥 등등)

-1월 14일(셋째날) / 강사 : 윤희운 & 이재욱 중고생이 제작한 ucc동영상과 청소년영화제 출품작으로 수업하기 / 나만의 역사,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영화로 만들기 / 1. 청소년 수업사례와 동영상 만들기 2. 청소년 수업사례와 핸드폰을 활용한 영화 만들기

- 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일정 : 2015년 1월 12일(월)~14일(수) (3일간, 10:00~17: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2호선 강남역)
-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교사), 담당교사, 예비사서교사, 자원활동가 등 40명
- 참가비 : 9만원 (학도넷 정회비를 내는 회원 8만원)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

2014 학도넷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 "낭송, 내 안의 울림"
 학도넷이 벌써 열한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한 책문화와 위해 가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출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문화를 가꾸어 오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우리 안의 평화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 연제 :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6~10시
 - 어디서 : 정원이 있는 국민책방

후원티켓 2만원

후원티켓 한 장으로 술과 먹을거리와 공연, 행사를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후원티켓은 미리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행사당일 입구에서 성함과 전화번호로 찾으셔도 됩니다.

후원계좌(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

마음을 나누는 책순환!

그림책 한권씩 품고 오세요. 집에서 묵히고 있는 그림책 요긴한 곳에서 되살려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만들어지는 마을 도서관/공부방 '흥부네 책놀이' 책꽃이를 채워주세요.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다!

사람이 보이는 사회 그림책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를 둘러싼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멀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사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생한 현장을 통해 배워 보세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밤을 지키는 사람들 신순재 글 | 한지선 그림
- 2 누가 초콜릿을 만들까? 이지유 글 | 이해정 그림
- 3 우리 동네 슈퍼맨 허은실 글 | 이고은 그림
- 4 누가 집을 지을까? 구본준 글 | 김이조 그림
- 5 뽀오뽀오 병원 24시 권재원 글 | 허민석 그림
- 6 태풍이 온다, 긴급 출동! 박경화 글 | 강전희 그림



사람이 보이는 사회 그림책 독후활동 대회

책을 읽고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골라 글, 그림, 사진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독후활동을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창비어린이 홈페이지 www.changbikids.com을 참조하세요. 대상 초등학생 부문 개인/단체 마감 2015년 3월 31일